

길치는 길을 잃지 않는다

영등포를 읽는 또 다른 방법

전시 개요

- ▶ 길치를 결핍이 아닌 하나의 인지 방식으로 바라보는 전시

기획 의도

- ▶ 지도 중심의 도시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각과 관계를 탐구
- ▶ 현대 도시는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.
- ▶ **GPS**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고, 지도는 가장 정확한 경로를 안내한다.
- ▶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지는 않는다.
- ▶ 누군가는 출구 번호를 기억하지만, 누군가는 빵집 냄새를 기억한다.
- ▶ 누군가는 지도를 보며 이동하지만, 누군가는 빨간 간판과 사람의 흐름을 따라간다.
- ▶ 이 전시는 흔히 '길치'라 불리는 사람들의 인지 방식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도시 읽기 방식을 다시 질문한다.
- ▶ 길치는 단순히 길을 못 찾는 사람이 아니다.
- ▶ 그들은 도시를 다른 언어로 읽는 사람들이다.
- ▶ 본 전시는 영등포라는 복잡한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'정답의 길찾기'가 아닌 '다양한 길찾기'의 가능성을 탐구한다.

전시 주제

- ▶ 지도는 답이 아니다
- ▶ 냄새, 소리, 기억, 감정도 길찾기의 언어다

전시 동선

- ▶ 프롤로그 → 지도의 세계 → 길치의 세계 → 인간 내비게이션 → 길치의 시선

섹션 1 : 지도의 세계

- ▶ 과도한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만드는 경험
 - 지하철 노선도, 영등포지도, 출구번호,
방향 화살표 보여주기

섹션 2 : 길치의 세계

- ▶ 갑자기 모든 지도가 사라진다
- ▶ 지도 없이 냄새, 색, 소리로 공간을 인식
 - 빵 냄새가 나는 방향,
 - 두번째 빨간 간판이 보일 때까지
 - 분홍선을 따라 가시오

섹션 3 : 인간 내비게이션

- ▶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길을 찾는 공간
 - 타임 스퀘어는 어디인가요?
 - 커피 냄새나는 방향으로 직진하세요

핵심 작품 : 길치의 시선

- ▶ 실제 길치 참가자의 영등포 탐험 1인칭 영상

참여형 작품

- ▶ 길치들의 기억만으로 재구성한 영등포 지도
 - 떡볶이 냄새나는 구역
 - 항상 길 잃는 장소
 - 출구가 너무 많은 곳
 -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곳

기대 효과

▶ 사회적효과

- 가치를 조롱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지유형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한다.

▶ 도시 경험 재해석

- 영등포를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도시 실험실로 재해석한다.
- 도시는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. 익숙하게 사용해온 도시의 언어를 낯설게 바라보게 하기

기획자 노트

- ▶ 길치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.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읽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.